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벤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 강해

하나님 전에 들어가기 위한 기도

(시편 5:1-12)

시편 5편은 7절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 전에 들어가기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배드리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본문에서 하나님과 악인을 대조시키며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악인의 자리는 없습니다. 빛이 비취오는 시간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든 불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기도는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 일뿐 아니라 악한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시편의 주석 학자들은 시편 3, 5편을 아침의 시라고 하고, 시편 3, 6편을 저녁의 시라고 합니다. 이 같이 성도는 해 뜨는 시간부터 해지는 시간까지 온종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펀전 목사님은 '기도는 하루를 열고 닫는 열쇠다' 라고 했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서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시인은 본문 1-3절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하나님을 '주'라고 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시인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호소하는 기도의 본질과 핵심의 표현 일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2.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들지 않으신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천국에서는 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 (4절), '오만한 자' (5절), '행악자' (5절), '거짓말 하는 자' (6절),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 (6절)의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4-6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점차적으로 죄에 민감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 시인과 같이 민감해야 합니다.

3.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기도합니다(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합니다.

바리새인은 의인으로 자처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랐던 세리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눅18:11-14).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서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길을 굳게 해주실 것을 청원하고(8절) 이어서 악인을 쫓아내달라고(10절) 두 번째 청원을 합니다. 다윗은 공적인 기도로 악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인을 원수 삼을 수 없으나 공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는 멸망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11절).

의인이 받을 상급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이나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기쁨은 잠시 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12절).

방패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 응답 받고, 그리하여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기도를 들어달라는 호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1절).

시편의 많은 시들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청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1)기도의 정신

시편 5편의 기도의 특성은 '귀를 기울이사', '헤아려 주소서', '들으소서' 라는 명령형 속에 기도의 긴급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아침에' (3절)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지구력 있는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반면 자기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한 두 번 하다가 잊어버립니다.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 응답하실 줄 믿고 계속적으로 지구력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눅 18:1).

다윗의 기도의 또 다른 특성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3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약 1:6). 우리는 기도를 한 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바라는 마음을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2)기도의 유형

우리는 기도할 때 말로 하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탄식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부짖으며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 '주님' 만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성하시며 기도를 도우십니다(롬 8:26).

(3)우리가 하나님과 가져야 할 관계

2005 열린바자 이렇게 진행한다

8월28일(주) 3부 예배 후 101호실에서 추첨

이웃사랑, 선교와 헌당을 위한 2005 열린바자 준비가 시작되었다. 조직은 지난 주 순례자를 통해 이미 발표되었고, 금번 바자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방침이 정해졌다.

또한 8월28일(주) 3부 예배 후 101호실에서 점포장들이 추첨을 하여 상품판매 장소 및 식당 위치를 추첨한다. 그리고 2005 열린바자에서 판매할 상품을 안내하고 성도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8월28일자 순례자는 바자를 위한 특별판으로 준비하기로 하였다.

<진행방침>

- 1) 바자출품 개념
바자에 출품된 물품을 이웃사랑, 선교와 예배당 헌당을 위한 헌금으로 받는다.
- 2) 판매장소
점포의 선정은 판매관리부의 주관 하에 8월28일 주일 3부 예배 후 101호실에서 점포장의 추첨에 의거하여 배정한다.
- 3) 교구점포의 운영
① 각 교구에서 출품한 물품은 각 교구 점포에서 판매하

고, 귀금속 및 서예품 등 특수상품은 특판 점포에서 판매하되, 판매대금은 출품교구로 종합된다.

- ② 각 교구별 봉사자 등의 현황판을 만들어서 1층 로비에 게시한다.
- ③ 각 교구별 점포장, 영업부장, 총무부장은 유니폼(빨간 조끼)을 입고 판매한다.
- 4) 식당운영
① 식당위치: 만나홀 - 주식, 간식 / 한티공원 - 간식류
② 만나홀 식당운영은 권사회에서 한다.
- ③ 식당(간식)운영의 장소추첨은 8월 28일(주일) 각 점포장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 5) 농,수산물 판매운영
① 설외부에서 주관하며, 8월 28일(주일)까지 납품 희망자로부터 품목별 견적서를 접수받고 판매 희망교구에 배정한다.
- ② 각 교구에서 선정한 품목은 우선적으로 선정한 교구에 배정하고 필요시 판매부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6) 위탁판매운영
① 설외부와 판매부 각 점포는 유기적인 연락으로 상품을 지정하고 위탁자와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질서 있게 동참케 하고 각 점포에 배정하여 판매한다.
- ② 각 점포에서 위탁받은 상품은 판매부에 승낙을 받아 판매수익금 등을 책정한다.

대학부 성경통독수련회

8월22일(월)-24일(수) 3일간 701호실에서

대학부는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충만 한 삶으로 캠퍼스에 돌아가기 위해서 8월 22, 23, 24일 3일간 성경통독수련회를 갖는다. 구약을 통독했던 지난 해 성경통독수련회에 이어 올해에는 신약 전장과 시편, 잠언의 본문을 통독하게 된다.

22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23일과 24일은 10시부터 5시까지 701호 대학부실에서 진행된다. 대학부원들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성경통독수련회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만민에게 전도 - 전도학교를 스료하며..

전도자로 거듭나겠습니다

김혜중집사(13교구)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와 같은 탕자를 14기 전도학교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24년째 은마아파트에 살며 입시생 남매를 둔 전형적인 강남의 학부모입니다. 고3 딸을 위하여 기도는 안하고 세상 학원에 자녀를 맡기고 그것에만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딸을 통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고 회개 후 전도의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때를 놓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봐 14기 전도학교에 입학하고 70인전도대목요축호팀에 합류하였습니다.

전도교육 중 하나님께서는 2가정 6명을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옆집의 두 자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두 자녀를 보고 항상 안타까워하던 중 흥해작전이 시작되자마자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두 자녀를 6월26일 교회로 인도하여 지금 초

등부와 유치부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저는 더욱 용기를 가지고 새벽마다 담대함과 전도의 열정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 두 번째 가정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교회를 정하지 못한 84세의 할머니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 할머니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서울교회소개와 전도교육 때 배운 데로 복음을 전하여 지난 주일에는 할머니와 딸 부부, 그리고 고2 외손자까지 온 가족이 서울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전도대상자인 일원동의 시각장애 우 할머니부부를 위해서 씬없이 기도 합니다.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셨던 할머니, 앞을 보지 못하는 관계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신 터라 매주 찾아 갔으나 아직도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서 속히 할머니부부를 긍휼히 여기사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계속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나 자신보다 형제를 사랑하고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성숙한 성도로 거듭나겠습니다.

2005 성경암송대회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10월28일(금) 본선

2005년 성경암송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금번 성경암송대회 본문은 빌립보서 전장으로 10월23일(주)에 각 교회학교 별로 예선을 치르고 10월28일(금) 602호에서 본선을 갖는다.

유아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

8월 성경통독 시상

8월중에 성경 통독을 한 성도들의 시상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있다. 8월성경통독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5독: 김성임 집사(3교구)
- 3독: 이윤영 권사(5교구)
- 2독: 김광신 장로(12교구)
- 1독: 이운선 장로(2교구) 강영자 집사(3교구)
- 이남성 집사(9교구) 유기찬 집사(14교구)
- 최낙준 집사(14교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장학생

우리교회가 복음주의 신학 확산과 아세아 복음화를 위해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보낸 장학금 수혜자 명단이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 조지 옴멘(George Oommen) : 인도학생, 박사과정 필립 다마위라(Philip Dharmawirya) : 인도네시아 학생으로 박사과정
- 툰 은 루(Tsun En Lu) : 중국학생으로 M.Div과정

금주의 성구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144:15)

Blessed are the people of whom this is true; blessed are the people whose God is the LORD.

(Psalms 144:15 [NIV])

장로스런회를 마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나라는 자비이다

김광신 장로(당회서기)

지난 8월15일 아침 9시 교회를 출발하여 저녁 9시까지 우리교회 장로부부 모두는 안산에 있는 안산공과대학의 국제홀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나라'를 주제로 장로부부 수련회를 가졌다.

원로장로, 은퇴장로, 시무장로, 협동장로 그리고 무임장로 부부 72명과 선교사 부부 5명이 참석하는 수련회에서 이중운 담임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묻고 초심에서 떨어진 것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영적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 중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셨다.

2005년 11월27일 현장을 기점으로 우리교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과제로 ①교회건물을 개방하여 청소년 복지에 주력하고 ②탁아소, 유아원, 상담소를 만들어 가족기능강화에 역점을 두고 ③일양운동의 적극적인 실천 ④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지원사업의 활성화 ⑤탈북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나그네 복지에 주력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문제, 여성문

제, 노인문제, 나라의 문제, 장애인 문제에 구체적 접근을 하자는 뜻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특강시간에 김영한 협동목사는 '내가 바라는 서울교회'에서 신학과 영성 그리고 사랑이 있는 서울교회가 지난 14년 동안 복음주의적 영성, 담임목사의 영적 리더십, 풍부한 인적자원을 통하여 한국교회사에 방향을 제시할 업적들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교학협동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신학포럼 설립을 제안하였고 통합측 교단의 신학을 복음주의로 이끄는 역할을 기대하였다.

김한성, 이은준, 조범연 세 분 선교사를 통하여는 신앙강술과 선교비전 제시의 식산이 있었고 해방교회 이승하 목사님의 모델교회로서의 장로상 특강시간에 장로는 목사를 닮아야 하고 서로 협력하며 담임목사를 가까운 이웃으로 섬기고 교회사랑, 인재양성에 힘을 쓰는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안산공과대학의 재단이사장이신 장인원 집사의 특별 배려로 장로부부 수련회는 피곤을 느끼지 못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다짐하고 환송을 받으면서 버스에 올랐다.



서울교회 장로 부부수련회의 특별 배려로 장로부부 수련회는 피곤을 느끼지 못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다짐하고 환송을 받으면서 버스에 올랐다.

장로가정탐방 - 임상현 장로 가정

믿고 구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일 아침 9시 1부 가족 예배의가브리엘 찬양대에는 마치 성악가와 같은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베이스 한 분이 있다. 약간 큰 안경에 인자한 웃음이 매력적이신 임상현 장로님이 바로 그 분이시다.



임장로님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시기 전, 한의원을 하시던 장로님의 전도로 교회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당시에 몇 일간을 엄청난 고열에 시달려 사경을 헤맸 때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이 심방을 오셔서 회복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갑자기 '믿고 구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왜 아파 누워있느냐'며 '다 나았으니 이제 벌떡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고 임장로님은 '나다 나았어'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 나셨다고 하신다. 이 사건이후 어린 임상현 소년은 믿고 구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고, 이듬해에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할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셨다고 지난 날을 회고한다. 임장로님은 부인 서희숙 집사님 사이에 경민

규연 연주 세 자매를 두었고, 서희숙 집사님과는 대학 시절 교회에서 만나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등으로 같이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나가셨다고 하신다.

장로님 가정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갈 5:16-18)는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계신다고 한다.

임상현 장로님은 교회의 장로로서 목회자의 복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로가 되고 싶다고 하신다. 뿐만 아니라 배운 것과 이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되는 신행 일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주님의 참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신다.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항상 임하시기를 기도한다. 오주명(편필부)

규연 연주 세 자매를 두었고, 서희숙 집사님과는 대학 시절 교회에서 만나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등으로 같이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나가셨다고 하신다.

장로님 가정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갈 5:16-18)는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계신다고 한다.

임상현 장로님은 찬양위원장과 가브리엘 찬양 대장과 주일 별률상담, 장년부 교사, 서희숙 집사님은 14년째 수요일부 예배 호산나 찬양대의 지휘자로, 주일에는 새가족부 교사로 교회를 섬기신다.

임상현 장로님은 교회의 장로로서 목회자의 복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로가 되고 싶다고 하신다. 뿐만 아니라 배운 것과 이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되는 신행 일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주님의 참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신다.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항상 임하시기를 기도한다. 오주명(편필부)

따뜻한 곳에서 만나자



故 장선영 지매

- 나는 세상에 남길 것도, 후회할 것도 물라설 것도 없다. -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선교지로 가던 도중 병사한 William Borden의 일기장에 기록된 말을 이중운 목사님이 천국환송에 앞서 인용하셨다.)

선영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대학부 전제가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어 했고, 이 어처구니 없는 소식에 우리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픔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훗날 다시 만날 수 있고, 선영이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걱정하던 부분은 이 큰 슬픔을 당하신 선영이의 가족들이었지만 선영이 어머니 박승희 집사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라 하시며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선영이는 참으로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항상 활짝 웃는 미소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많은 지체들의 본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선영이는 조의 조장이었는데, 잘 나오지 않는 조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대학부에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영이었기에, 저희 조원들은 지난 주 성경 공부 시간에도 계속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던 중에 저희 조 선생님으로부터 참으로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영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선영이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신 선영이 어머니 친구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꿈에 선영이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좋은 곳인 줄 몰랐어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나의 어머니를 만나시면 이 말을 꼭 좀 전해주세요."

선영이는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아름다운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것처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 선영이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그 날을 기대합니다.

유수진 (대학부)

만민에게 전도

민족복음화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김금준 집사
(2005년 농촌전도대 전도분과장)

이번 농촌전도대의 전도분과에서는 전도

실시방향을 외부전도 및 내부전도로 크게 나누고 외부전도로는 그동안 "서울교회 전도학교"를 수료한 대원을 중심으로 정예팀을 구성하고 주천제일교회 인근지역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실시하되 전도방법은 그동안 70인전도대 목표축호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도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의 전도방법을 주천제일교회에 그대로 심어주어서 향후 교회 자체적으로 전도활동이 가능하도록 해당교회의 교인을 대상으로 전도특강을 실시하고 몇몇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활동에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부전도로는 의료분과소속대원들이 치료중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1:1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착 첫날에는 주민들의 반응이 냉

담했으나 다음날에는 같은 지역을 오전, 오후 두 번 씩 가가호호 방문 하여 결신가능성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도 하였습니다. 내부에서는 한방의료분과에서 정성껏 치료를 하였고 취사분과에서는 정성어린 음식으로 극진히 대접하였으며 교회본당에 자리잡은 교육찬양분과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 및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노력들이 어우러져 오후에는 전도대원들이 주민들을 직접 인솔해서 오는 등 호응도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호응도는 마지막 날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날은 장대비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내렸으나 우리의 전도열정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산이 무용지물인 정도의 폭우 속에서도 거리를 다니며 전도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전도의 긴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방치료원원이 200명을 넘었고 저녁찬양집회에는 교회에 배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많은 주민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

년 79명, 어린이 79명 총 158명의 결신자를 얻었으며 향후 하나님을 믿겠다는 태신자 319명의 명단을 주천제일교회에 인계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농촌전도대 파송이 가능한 대한민국 도시교회들이 연합하여 일정기간 동안 각자 "제한된 지역에서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한 입체적인 집중전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면 2020운동의 목표달성년도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전도"라는 한 깃발아래 사명감으로 모였던 대장 윤찬오 장로님과 모든 대원들의 수고는 분명 주천지역 복음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후원해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5일(목) 화란 언론인들과 한국교회 성장에 대한 인터뷰를 한다. 동북 아세아 기독교 사학 협의회 제4회 국제세미나 개최순서를 맡는다.
- 득녀: 윤준호 권수정 성도 가정(10교구, 권장환 집사 윤영남 집사 외손녀)
- 학위수여: 1교구 고영신 집사 8/19 한양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 수여
- 개월: 이숙희 집사(14교구) '즐거 찾는 공인증계사' 개포5단지 앞 T.445-3366
- 주간식당봉사: 비화전도회(8월21일) 마리아전도회(8월28일)
- 금주의 식사: 김태형 성도 및 가족일동 (모친-김영연 권사-장례를 마치고)

만민에게 전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있는가?

전리사 (청년부 '74 또래)

서울교회에 등록한지 얼마 안 되어 청년부라는 공동체 속에 나의 신앙생활은 더 발전해 나갔다. 각박한 세상 전쟁 속에서 지내는 내가 수련회를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시사 많은 청년부 일원들과 뜻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먼저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린다.

이번 수련회는 124명이라는 인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로 각자의 믿음을 확신하고 눈물의 기도와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과 일대일 만남을 통해 인생에서 뚜렷한 우선순위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이종윤 목사님과 오정식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이번 수련회

에 주제인 "청년에 때에" (전도서 12:1~2)로 시작되었다. 생존을 위한 인생인자 아님 복음으로 위한 삶인지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면서 회개할 하게 되었고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자녀가 되기를 희망했다. 청년에 때에 꿈과 비전을 갖고 주님께 헌신하고 말씀에 의지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담대함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루하루를 계획한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있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질문이 아닌 대담으로 인생 설계도를 그린다.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환경 앞에서 굴복하는 이 세상 속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설립 14주년 기념 14가지 행사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케 하소서
4.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20분 3부 오후 2시
한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교회오시는 길

